

현대건축에 대한 이해-이념

이 일 형 | 순천향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은 현실의 건축활동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의 변화는 언제나 이념적 변화의 뒤를 쫓게 된다. 중세에서 르네상스로의 변화된 세계관이 마사치오·보티첼리·도나텔로부터, 다재다능했던 ‘르네상스 인간’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미켈란젤로·라파엘로 등을 통해 르네상스 예술의 전성기를 맞았던 것과 같이, 산업혁명을 통한 물질적 기반과 마르크스·다윈·프로이트·아인슈타인 등이 만들어낸 이념 및 과학적 변혁은 19세기 인상주의 회화를 전후로 촉발되었던 예술상의 수많은 이념들을 결국 모더니즘의 깃발 아래로 수렴시켰다.

현대건축의 변화

인류문명사에서 가장 활력적이고 변화가 많았던 시기는 20세기였다고 생각된다. 지난 1백년간에는 이전의 1만여 년에 걸쳐 발전해 왔던 건축과 도시에서의 커다란 변혁이 이루어졌고, 건축가들이 꿈꿔왔던 상상속의 미래가 상당부분 실현된 시기였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잡지 『라이프(Life)』가 ‘황금의 60년대(Golden Sixties)’라고 부른, 1960년대는 20세기의 절정기이자 황혼기의 시작이었다.

대량생산과 소비시대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서구사회에서, 1960년부터 시작된 베트남 전쟁과 1968년 프랑스 파리대학에서 시작된 투쟁으로부터의 변화와 위기의식은 ‘모든 가치의 재검토’라는 측면이 있었다. 한정된 지구의 자원문제와 공해에 따른 환경의 재인식, 핵무기에 대한 공포, 제3세계의 등장에 따른 세계질서의 재편, 대중문화의 급속한 확대 등이 자기부정과 기성사회에 대한 반발을 촉발했고, 드롭아웃(dropout)한 히피들을 배회시켰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비로소 근대(modern)라는 시대를 객관적으로 상대화하여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다.

건축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1956년에 근대건축국제회의(CIAM)는 젊은 건축가들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방향모색에 의해 종말을 고했으며, 거장 건축가들이 주도했던 모더니즘에 대한 회의가 일기 시작했다. 첨단과학과 기술, 관련 제(諸) 학문의 포괄적 수용과 접목, 의사소통 수단으로 건축을 인식하기 시작한 움직임들이 추상적 미학과 기능 중심적인 모더니즘의 근대건축에서 다원주의(pluralism) 경향의 현대건축으로 발전을 가속화시켰다. 이때부터 건축이념과 디자인 사조가 예전보다 중요한 건축의 형식과 내용이 되었고, 건축가들은 건축의 방법론에 대해 보다 의식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모더니즘: 국제주의 양식 이념

건축은 현실의 건축활동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의 변화는 언제나 이념적 변화의 뒤를 쫓게 된다. 중세에서 르네상스로의 변화된 세계관이 마사치오(Masaccio) · 보티첼리(Botticelli) · 도나텔로(Donatello)로부터, 다재다능했던 '르네상스 인간' 이었던 다빈치(Leonardo da Vinci) · 미켈란젤로(B. Michelangelo) · 라파엘로(S. Raphael) 등을 통해 르네상스 예술의 전성기를 맞았던 것과 같이, 산업혁명을 통한 물질적 기반과 마르크스(K.H. Marx) · 다윈(C.R. Darwin) · 프로이트(S. Freud) · 아인슈타인(A. Einstein) 등이 만들어낸 이념 및 과학적 변혁은 19세기 인상주의 회화를 전후로 촉발되었던 예술상의 수많은 이념(~ism)들을 결국 모

더니즘의 깃발 아래로 수렴시켰다.

음악에서의 스트라빈스키나 회화의 피카소, 조각의 브랑쿠시 등이 했던 것과 같이, 아르누보 · 미래파 · 데스틸(De Stijl) · 표현주의 · 러시아 구성주의 등으로 이어진 20세기 초반의 아방가르드 예술 및 건축운동의 이념들은 모더니즘의 근대건축으로 개화되었다. 이러한 모더니즘 건축의 절정은 '볼륨(volume)으로서의 건축' '규칙성을 지닌 건축' '무(無)장식의 건축'을 표방한 자본주의와 획일성의 표상이 된 국제주의 양식의 건축에서였다.

1851년 런던박람회의 수정궁 이래로 보편화되기 시작한 철 · 유리 및 콘크리트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국제주의 양식의 건축은, '평지붕과 모서리를 감싸는 띠창'



해체주의 - 빌레트 공원, 1989

모더니즘 건축의 절정은
‘볼륨(volume)으로서의 건축’ ‘규칙성을 지닌 건축’ ‘무(無)장식의 건축’을
표방한 자본주의와 획일성의 표상이 된 국제주의 양식의 건축에서였다.

‘직각의 형태와 장식의 배제’ ‘자율적인 구조 프레임’ ‘융통성 있는 내부공간’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살기 위한 기계’를 표방했던 코르뷔지에의 <사보아 주택(Villa Savoye), 1931>이나, 한국의 서울에 세워진 그 당시 초고층 건물이었던 김중업(金重業)의 <삼일빌딩, 1970>에 모범이 되었던 미스(Mies)의 <시그렘(Seagram)빌딩, 1958> 등이 있다. 그래서 국제주의 양식의 보급은 전 세계 어디서나 같은 건축재료를 사용하고 모노톤 색상의 비슷한 상자형 모습을 한 획일적인 건축을 양산하게 되어,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 들뢰즈의 주장과 같이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에는 부적합하게 되었던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 다원주의의 이념

철학자 헤겔처럼 거창하게 역사를 테제(thesis)·안티(anti)테제·진(syn)테제와 같은 서로 역동적인 개념들 사이의 투쟁으로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실증을 잘 내고 쉽게 변하는 속성을 지닌다. 서구 건축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보면 다른 문화사와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발전 속에서도, 디자인 양식과 건축적 이념에서 대체로 일정한 순환(cycle)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근자의 상황으로는 조심스러운 발상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미적 기준의 변화를 여성에게 한정시켜 보면, 오래 전부터 18세기까지는 라파엘로·루벤스·앵그르의 그림처럼 풍만한 여성이 오랫동안 아름다운 여인의 이상형으로 자리 잡아 왔음을 볼 수 있다. 19세기에 와서는 코르셋의 등장으로 가는 허리의 체형이 강조되다가, 20세기 초에는 처음으로 마른 체형이 이상형으로 등장한다. 50년대에는 마릴린 먼로와 같이 가는 허리에 풍만한 가슴과 몸매의 곡선미에 감탄했고, 60년대 이후부터는 미니스커트를 유행시킨 가늘고 마른 트위



포스트모더니즘 - 포틀랜드 시청사, 1982

기(Twiggy) 스타일의 체형이 여성미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으며, 80년대 이후에는 여전히 마른 체형에 신디 크로포드와 같이 근육형의 관능적인 체형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렇듯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성을 바라보는 미적 기준이 바뀌어 왔음을 볼 수 있는데, 건축 역시 예술의 한 영역으로서 미적 대상으로 본다면, 모더니즘 시기 특히 국제주의 양식에서 보편화되었던 숨막힐 듯 뒹뒹한 기하학적 형태의 단색조 건물이 왜 복잡한 장식과 형태, 다양한 색상의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20세기 초두의 사람들이 기계를 하나의 모델로 놓고 미래의 사회를, 그리고 그 사회를 만들어내는 건축을 꿈꾼 이래, 근대라는 이미지는 하나의 이상이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1·2차 세계대전을 통해 과학과 기술에 의한 낙관론은 점점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대

중주의에 근거한 벤츄리(R. Venturi)와 무어(C. Moore) 등이, 유럽에서는 신(新)합리주의적 도시의 유형학에 바탕을 둔 로시(A. Rossi)와 웅거스(O.M. Ungers) 등, 근대건축을 상대화하여 버린 이론이나 작품의 건축가들이 나타났던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앤디 워홀이 시도했던 바와 같이 대량 소비시대의 산물인 콜라, 햄버거, 번기, 립스틱 케이스와 같은 대중들에게 매우 친근한 것들을 일명 스타일로 만들어서 사물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도록 하거나, 올덴버그(C. Oldenburg)와 같이 소재 및 크기에 대한 변형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색다르게 했던 팝아트(또는 대중주의)가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전술(前述)한 60년대 전후의 변혁이 사회와 그것의 이념을 뒤바꾼 후, 그 사회를 반영하는 문화와 예술이 변하게 되고, 이어서 건축을 대하는 이념과 방법론이 바뀌게 된 것이다.

과거를 경멸했던 모더니즘의 건축가들이 만들어낸 개성이 없는 엄격한 외관보다는 역사적이고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건축을 지향했던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에 대해, 스톤(R. Stern)과 같은 건축가이자 비평가는 주변의 환경을 중시하면서 과거의 역사적 건물처럼 건축물에 장식을 하거나 역사적인 건축적 사례들에서 적절히 디자인을 차용하는 절충적 태도를 포함하여 맥락주의·장식주의·인유주의로서 그 특성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쟁크스(C. Jencks)와 같은 영향력 있는 비평가는 이중코드(dual code), 그러니까 과거의 요소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면서 변형시키고 찌그러뜨리며 규모를 과장하여 애매함과 풍자를 표현하고자 건축의 의사소통 체계를 중시하는 것에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두고 있다. 이것은 벤츄리의 '둘 중 하나만(either-or)'이 아니라 '둘 모두(both-and)'를 수용하고, 단절된 대중

과 다시 소통하는 접근하기 쉬운 포괄적인 양식의 이중코드를 의미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60년대 이후에 건축에 도입된 사회학·언어학·심리학·인간공학·생태학(生態學) 등, 제 학문과의 교류를 통해 건축의 의미와 방식을 해석코자 하는 태도는,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인 〈포틀랜드 시청사, 1982〉를 설계한 그레이브스(M. Graves)의 의미론적 방식이나, 근자에 해체주의 건축의 선봉에 있는 아이젠만(P. Eisenman)의 통사론적 방법론에까지 이어져 있다.

70~80년대에 이르는 동안 포스트모더니즘의 건물들은 다양한 색상과 고전적인 양식의 요소들에 의한 잡동사니로 장식되었다. 이 경향의 건축가들은 과거의 모든 시대에서 이것저것을 끌어와 자유롭게 사용했는데, 모더니즘의 매끈함은 사라지고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하이테크 - 홍콩 상하이은행, 1986

네오모더니즘 건축에는 이념적 측면에서는 1960년대 이후 후기구조주의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는 해체주의 철학과, 디자인 측면에서는 반(半)세기 동안이나 잊혀졌던 러시아의 구성주의와 관련이 있는 해체주의 건축을 주축으로 하면서, 크게는 포스트모더니즘과는 대별적인 입장에 있는 60년대 이후의 레이트 모더니즘과 하이테크 건축까지를 포괄할 수 있다.

다원주의적 생각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것의 디자인 특성으로는 애매성과 메타포의 중층과 같은 언어적 매개를 통한 방식, 역사적 건축언어의 인용과 절충 및 복고주의와 같은 과거 역사 지향적인 방식, 저속한 취미인 키취와 같은 대중예술적 방식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이 대중적이고 쉽게 상업화할 수 있다는 이유는, 깊이나 고상함이 없는 걸만 치장하는 데 사로잡힌 '짜구려 건축'이며 감각적인 것을 찾는 대중의 기호에 영합하기 위해 '포장되어 팔리는 역사'라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운 것이다.

네오모더니즘(Neo Modernism): 혼성의 이념

포스트모더니즘은 1980년에 열렸던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을 정점으로, 90년대 이후 네오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조류에 밀려나게 된다. 네오모더니즘 건축에는 이념적 측면에서는 60년대 이후 후기구조주의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는 해체주의 철학과, 디자인 측면에서는 반(半)세기 동안이나 잊혀졌던 러시아의 구성주의와 관련이 있는 해체주의 건축을 주축으로 하면서, 크게는 포스트모더니즘과는 대별적인 입장에 있는 60년대 이후의 레이트(Late)모더니즘과 하이테크(High-tech) 건축까지를 포괄할 수 있다.

레이트모더니즘 건축의 스타일은 모더니즘의 기계라는 주제에 명백히 종속되어 있는 매너리즘적 과장이다. 즉, 내부는 등(等)방향적인 공간의 동일체 탐색이며 기능적인 외골격(외벽의 철제골조, 파이프, 덕트, 튜브)을 지향하는 테크놀로지를 수사적이고 장식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으로서, 모더니즘 건축의 이상을 구조와 설비에서 극한까지 추구한다. 또한, 60년대 영국의 아키그램(Archigram)이나 일본의 메타볼리즘(Metabolism)과 연속선상에 있는 하이테크 건축에는 에컨대 기계라는 단일 코드(表象)의 표상(表象), 증식이라는

이미지가 따라다닌다. 이러한 미래주의적, 과학적인 측면이 강조된 하이테크의 건축은 교환 가능한 복잡한 설비가 장식처럼 거대한 구조체에 매달려 지지되고 있다.

레이트모더니즘에서 존슨(P. Johnson)의 <Pennzoil Place, 1976>는 미니멀리즘(minimalism)의 조각과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해체주의 건축에서 철물점에서나 볼 수 있는 값싸고 혼한 재료로 또 다른 방식의 미학을 보여주고 있는 게리(F. Gehry)의 티타늄(titanium)패널 마감으로 번쩍이는 <Guggenheim Museum Bilbao, 1997>에서 보여지는 다채로운 조각적 구성의 건축과 비교된다. 본격적인 하이테크 건축의 이정표라 할 수 있는 피아노(R. Piano)와 로저스(R. Rogers)의 <Center Pompidou, 1977>는 번잡한 공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포스터(N. Foster)의 <Hongkong Shanghai Bank, 1986>는 같은 규모의 기존 방식으로 지어진 건물에 비해 3배의 비용이 들어간 매우 값비싼 건축물이다. 하이테크 건축에서 보이는 이런 복잡한 조직을 전면에 배치한 것은 기능적이라고보다는 시각적인 장식효과를 위한 것이어서, 효율적인 기술과 예술적인 미학의 혼성이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해체주의 이론에 따르면 고정되고 이해하기 쉬운 진리란 없으며, 단지 혼돈과 다양한 해석만이 존재할 따름이다. 해체주의 건물의 조각난 파생물들은 아찔하고 다양한 투시법으로 혼돈의 상태를 보여준다. 그것의 건축은 돌출된 지붕과 구부러진 벽체, 균형을 잃은 것처럼 기울어진 기둥의 모습으로 마치 건물을 부수고 조각내어 뒤범벅으로 한 것 같아, 파괴된 혹은 건설 중에 있는 것과 같은 안정감이 결여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현기증과 혼돈이 이들이 원한 해답이다. 해체주의 건축가들은 이 양식이야말로 현대미술이나 음악에서와 같이 모든 스타일이 시도된 후에 나온 세기말의 문화적인 혼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테크 건축과 츠미(B. Tschumi)와 쿵 힘멜브라우(Coop Himmelblau)의 해체주의 건축에서 나타난 디자인은 전혀 별개의 것이면서도 형태적으로 일부 상통되는 것은 역시 동시대성과 기능주의 혹은 형태와 기능의 인연(因緣)주의에 대한 비판정신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예술에서 절대적 규칙은 변화이다

역사의 진전은 일련의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단 특정한 사회의 가능태가 어떤 양식의 생활방식으로 실현되고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하면 그 구성원들은 곧 그것의 부적합성을 깨닫고, 아무런 의문 없이 받아들였던 제도와 법칙을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느끼게 된다. 건축에서도 하나의 이념은 앞 시대를 지배해온 이즘과의 결별이나, 혹은 그 이즘의 소멸에 의하여 연속된 과정 속에서 새롭게 나타난다.

지난 20세기 주요한 건축의 모든 운동에서 중심에 있었던 미국 건축계의 대부격인 필립 존슨을 표지모델로 한 1979년도 1월 8일자 『TIME』지의 표제는

“U.S. Architects doing their own thing”이었다. “예술에는 단 한 가지의 절대적인 규칙이 있다. 그것은 곧 변화다”라고 말했던 존슨에게 유행을 쫓는 그의 신념만큼 확실한 것은 없었다. 사회적 이념의 변화는 문화와 예술, 그리고 결국에는 건축이념과 디자인의 변화에 다다른다. 이것이 이념과 디자인에서의 유행인 것이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人



모더니즘 - 사보아 주택, 1931